



미 상원, 정부부채 한도 증액 절충안 도출

김세중 선임연구원

- 7월 19일 민주·공화 양당의 중진 상원의원 모임인 ‘갱 오브 식스’가 향후 10년간 3조 7천억 달러의 적자감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지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난항을 겪던 정부부채 한도 증액 합의가 진전을 보임.
 - 이번 안은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을 포함한 재정 지출을 2조 7천억 달러 삭감하고 세제 조정을 통해 1조 달러의 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복지지출과 증세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장을 절충한 것임.
 - 그러나 공화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이 이번 절충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이며, 부채 한도 증액 시한인 8월 2일까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상하원을 통과하는 절차가 완료 될 수 있을지도 관건임.
 - 7월 20일 백악관은 민주·공화 양당이 큰 틀에서 합의하는 경우 세부적인 입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도록 단기적인 임시적인 정부부채 한도 상향조정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 절충안 발표에 앞서 신용평가회사들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합의에 진전이 없자 일제히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의회를 압박함.
 -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와 S&P는 7월 14일과 15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피치(Fitch)도 7월 18일 정부부채 한도 증액안 타결 여부에 따라 미국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경고함.
 -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세계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사들의 경고가 의회의 정부부채 한도 증액 합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Businessweek 등, 7/20)